



국립산악박물관 소장품 '설악산솜다리꽃'

설악산솜다리꽃

설악산 높은 능선의 바위틈에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라고 불리는 '설악산솜다리꽃'이 있습니다.
솜다리의 꽃말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올 한해도 이제 곧 추억이 되겠지요.
우리 모두의 추억이 설악산솜다리꽃처럼 소중한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발간에 부쳐 3

박물관 소장품 소개

해좌전도海左全圖

국립산악박물관에는 조선시대 K-지도가 있다! 4

기획전시

당신의 추억 그 여딘가,

설악산 그때 그 시절 6

박물관 온라인 전시

국립산악박물관 <기증자 소장품展>

두 주먹의 희망전도사, 산악인 故김홍빈 10

센터 사업 소개

지정 국가숲길, 한라산둘레길

걷다보면 만나는 한라산의 동식물과 친구되기 12

학교 사업 소개

숲길등산지도사

안전 산행을 위한 길라잡이 14

산림레포츠지도사

산과 하늘을 가로지르는 안전 모험의 멘토 15

행사 후기

신입직원들이 들려주는 生生한 행사 뒷이야기

산이 좋다, 사람은 더 좋다 16

박물관 소식 18

지역 상생

속초해변

누구나 바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 20



발간에 부쳐

안녕하십니까

국립산악박물관의 소식지 '설피'가 제14호 발간을 맞았습니다. 이번 '설피'에서는 산악박물관의 소장품, 기획전, 숲길 등 다양한 산악 문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고자 지역 상생 코너에 속초지역 최고의 핫플레이스인 속초해변을 담았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은 설립 9주년을 맞아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매년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기획전시는 '설악산 그때 그 시절'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설악산은 예로부터 문인들의 유람, 근대에는 도전하는 등반 역사, 60년대 관광의 열풍, 70·80년대의 수학여행, 신혼여행 등으로 늘 북적였던 곳입니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여러분의 추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설피' 발간에 애쓴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과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산림 문화 발전에 힘써 주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산악박물관이 바람직한 산악·등반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30.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 전 범 권

해좌전도海左全圖

국립산악박물관에는 조선시대 K-지도가 있다!

글. 학예연구실 이명희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일상이었던 2020년 5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TV 리모컨으로 채널 탐색 중이었던 나. 잠깐. 어디서 많이 본 지도다.
채널 고정. 국립산악박물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지도가 TV 교양 프로그램에 등장했다.
해좌전도海左全圖. 반가움은 이내 무심코 지나쳤던 지도에 대한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다짐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K-지도를 널리 널리 자랑하리라고 말이다.

조선후기 대표적 K-지도, 해좌전도

해좌전도海左全圖(57.0×98.5cm || 조선후기 || 목판본)
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목판 부분 채색지도이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중국 오른쪽에 있어 해동, 동국, 청구 등으로 불렸다. 그럼 해좌海左라는 명칭의 근거는? 역발상이다. 지도를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황해黃海 왼쪽에 있다. 즉, 지도를 펼쳐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가 지도 속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좌우의 명칭이다. 해좌전도는 우리나라 군현의 위치와 도로, 각 읍과 산천·역·사찰·진·포 등의 주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표현한 도폭지도圖幅地圖이다. 바다에 해당하는 좌·우·아래 쪽 여백에는 주기注記를 달아 두었는데, 제목 아래에 폐사군廢四郡의 연혁, 백두산, 주요 지역, 섬과 산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다. 한 장 지도에 여백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요 정보를 담은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울릉도와 우산于山(독도의 옛날 표기), 제주도과 우도까지 그려졌고 울릉도, 제주도, 대마도는 육지와 연결되는 뱃길이 표시되어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주기 중 금강산과 설악산 부분을 소개한다. 소리 내어 읽어보자.

金剛山. 延袤五百餘里. 凡一万二千峯, 巖嶽骨立, 峯巒洞府, 純是白石. 而乃至万仞之巔, 百丈之潭, 混是一石. 峯之最著者, 太上峯毗盧峯望軍臺, 洞之最深者, 萬瀑洞百塔洞靈源洞水簾洞, 泉石之最名者, 須彌塔衆香城玉鏡臺, 寺刹之最著者, 長安寺表訓寺正陽寺楡岾寺摩訶衍庵. 登毗盧峯四望, 蒼蒼者惟天, 而東極萬里之海, 西聯千里之峽. 萬二千峯環衛拱揖, 朝暮之變態, 四時之煙霞, 筆畫難盡.

금강산. 면적은 5백여리이다. 무릇 일만 이천 봉우리이니 바위가 뼈처럼 솟았고 산봉우리와 골짜기가 순전히 흰 돌이다. 그래서 만 길 산꼭대기와 백 길 못에 이르기까지 온통 하나의 돌이다. 산봉우리로 가장



해좌전도 海左全圖

|| 57.0×98.5cm || 조선 후기 || 목판본



해좌전도 중

금강산 || 설악산 부분

유명한 것은 태상봉·비로봉·망군대이고, 골짜기로 가장 깊은 것은 만폭동·백담동·영원동·수렴동이며, 샘과 돌로 가장 이름난 것은 수미탑·중향성·옥경대이고, 사찰로 가장 유명한 것은 장안사·표훈사·정양사·유점사·마하연 암자이다. 비로봉에 올라서 사방을 바라보면 푸른 것은 오직 하늘이며, 동쪽 끝에는 만리 되는 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천리되는 골짜기가 이어져 있다. 만이천 봉우리가 비로봉을 빙 둘러서 읊하는 듯한데, 아침저녁으로 변화는 모습과 사계절의 구름과 노을을 붓으로 다 그려내기 어렵다.

雪岳山。石勢連天，峯巒聳列，白石如雪。石山石泉，鬼峩辭辭，幽深淒冷。疊嶂喬木，蔽虧天日。有普門庵新興寺食堂。泉石之勝，山之西南曰，寒溪山。有万丈大瀑，又有鳳頂百潭寺。

설악산. 돌의 기세가 하늘에 닿고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서 나열해 있으며 흰 돌은 눈과 같다. 돌산과 돌샘은 우뚝이 솟고 그윽하며 서늘하다. 겹겹 산봉우리에

있는 교목들은 하늘의 해를 가린다. 보문암·신흥사·식당암이 있다. 천석山水의 명승지는 설악산의 서남쪽인데, 한계산寒溪山이라고 한다. 만길 되는 큰 폭포가 있고 또 봉정암과 백담사가 있다.

특별한 추억, 그리고 만남을 기다리며

지도에 나온 주기만 읽어도 눈앞에 금강산과 설악산이 펼쳐지는 듯하다. 여러분도 설악산에 올라 자신이 좋아하는 시 한편 낭독해 보시면 좋겠다.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될 산행이 될 것이다. 혹시 마땅한 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해좌전도 설악산 주기를 추천한다.

국립산악박물관에서는 유물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계와 교류하고 관람객에게도 소개해 오고 있다. 소개한 해좌전도는 23년 10월 5일부터 24년 5월까지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국립산악박물관 기획전시 '설악산 그때 그 시절' 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당신의 추억 그 어딘가, 설악산 그때 그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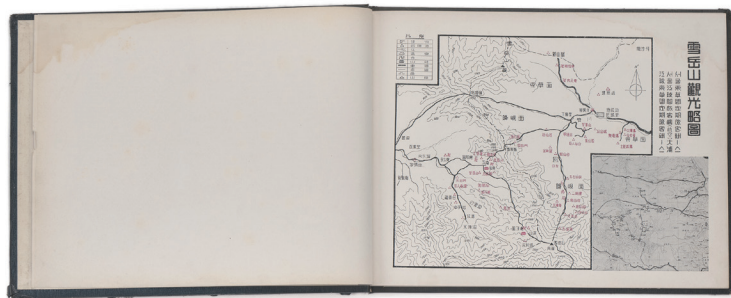
글. 학예연구실 박수미

이번 기획전시는 속초시승격60주년을 기념하고 백두대간 중심부에 자리한 우리나라의 명산 설악산을 돌아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설악산이 개발되고 수학여행, 신혼여행지로 전성기를 누렸던 추억의 순간부터, 개척정신으로 산봉우리들을 올랐던 수많은 도전의 순간까지 설악산 그때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추억의 산

1950년대 관광버스의 등장과 미시령의 개통, 그리고 설악산을 알리기 위한 속초시민들의 노력은 설악산 관광시대의 서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961년 정부가 관광사업진흥법을 발표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관광시대가 열렸습니다. 더불어 설악산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속초의 인구도 증가해 1963년에는 속초시로 승격하는 경사를 맞게 됩

니다. 설악산 안으로는 관광객들이 설악산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철다리와 계단이 생겼고, 일반 등산로들이 갖춰졌습니다. 설악산 밖으로는 극동항공과 대한항공이 서울-속초 노선을 취항하면서 자동차로 10시간이나 걸리던 설악산 여행이 1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1970년대 여관, 호텔, 콘도 등 다양한 숙소들이 생겨났고, 대규모의 숙박시설이 갖춰지면서 수학여행 신혼여행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설악산관광화첩

1958 | 36×26cm

설악산 최초 관광 사진집이다. 1958년 4월 15일 설악산관광화첩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다.

발행인은 이달영, 편집 및 촬영은 최구현이며, 발행소는 설악산관광협회이다.

외국인들에게 설악산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진 설명을 한글, 영문으로 기재하고 있다.

외설악과 내설악의 주요 봉우리와 계곡, 사찰, 폭포 등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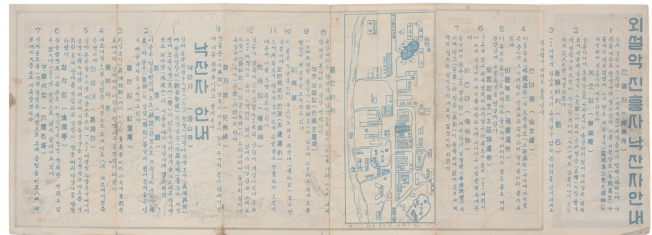
국립공원 설악산 수학여행 기념 패너트
1983년 | 16×25cm



외설악안내도

현대 | (접지시)9.5×19.5cm,
(펼침시)54×19.5cm

전국 스탬프사 발행 외설악 안내도이다.
한쪽 면에는 안내지도가 반대편에는
신흥사, 낙산사, 설악산 울산바위 등
명소의 설명이 담겨있다.



1960~90년대 설악산기념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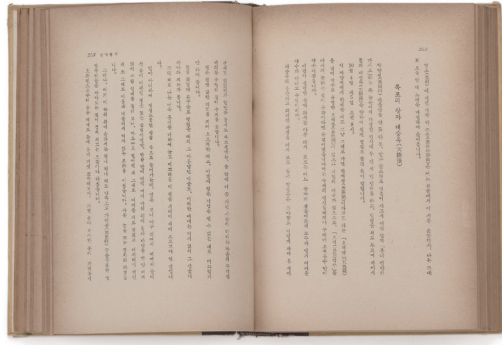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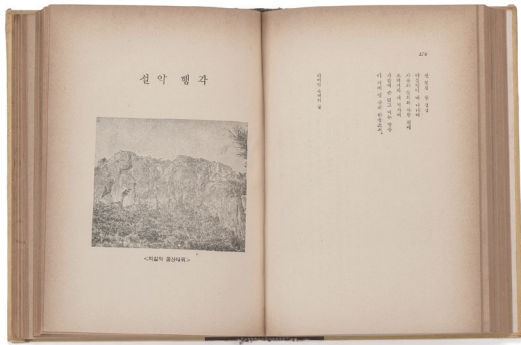
- ① 병풍 모양 기념품 (대)77×26cm
- ② 병풍 모양 기념품 (소)47×19cm
- ③ 설악산여행기념 연필 모형 2.5×20cm
- ④ 설악산여행기념 연필 1.5×26.5cm
- ⑤ 에델바이스 액자 (사각) 12.5×17.5 (원형) 8.5×10.5cm
- ⑥ 흔들바위 모양 관광기념품 18.5×18cm
- ⑦ 설악산관광기념품 10×10cm
- ⑧ 관광 기념 메달 목걸이들
- ⑨ 국립공원설악산 열쇠고리 3.5×20cm
- ⑩ 한반도 모양 재떨이 29×36.5cm

도전의 산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알피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로 산악인들의 도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가파른 암벽과 얼음폭포는 해외에 있는 유명 고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충분할 정도이며, 우리나라 산악사에서 설악산 동계 등반은 큰 위상을 차지합니다. 1933년 노산 이은상의 설악산 최초 탐사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 땅이었던 설악산 지역을 수복하고 다시 자유롭게 설악산을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55년 서울공대 산악회의 미시령·외설악 답사를 시작으로 설악산 초등·개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등반 교육이 시작된 사진과 서울대학교 문리대산악회 적설기 설악복주능 초등자료는 당시 설악산 등반에 진심이었던 산악인들의 끝없는 도전과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획 전시 중인 '설악산 그때 그 시절'에서는 그 외에도 설악산 사고와 대피소, 구조대, 빙벽대회 등 설악산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면에 다 담지 못한 설악산 이야기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립산악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 '산찾아 물따라'

| 1966년 | 15x21cm

시조시인이자 산악인인 노산 이은상의 글을 엮은 책으로, 설악행각이 수록되어있다. 설악행각은 1933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 동안 설악산을 탐사하고 적은 기행문이다. 당시 동아일보에 연재되었고 추후 책으로 발간되었다. 이은상은 길을 안내할 심마니, 포수 등 15명의 일행과 함께 12선녀탕, 안산, 한계산성, 대승폭포, 봉정암, 대청봉, 마등령 등을 탐사하였다. 이후 이 기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설악산이 개방되었을 때, 산악인들은 설악행각을 가지고 설악산을 답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설피

광복이후 | (좌)24x36cm (우)28x3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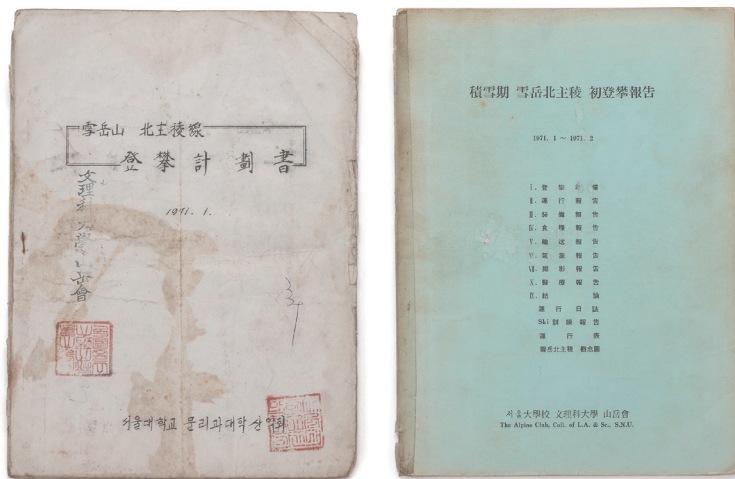
설피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이동시 발이 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신발 위에 신고 다니는 덧신이다. 예로부터 겨울 등산에 꼭 필요한 용품으로 사용하였다.



서울대학교 문리대산악회 계획표 / 보고서

(좌)설악산 북주능선 등반 계획표 (우)적설기 설악북주능 초등보고서 | 1971 | 19x26cm

서울대학교문리대산악회는 1971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북주능(진부령-마산-
신선봉-미시령-저항령-마등령-희운각-청봉-천불동계곡)을 초등하였다.



하계 등산학교 교육사진

1960년대 | (소)11.5x7.5cm

(중)9.3x13cm (대)19.5x11.5cm



국립산악박물관 <기증자 소장품展> 두 주먹의 희망전도사, 산악인 故김홍빈

.....

2023년 국립산악박물관 온라인 전시는 기증자들 10명을 선정해 그들의 기증품 중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산악인 故 김홍빈의 기증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머지 9인의 기증품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 손가락 없이 끊임없는 도전으로 희망을 전했던 산악인 김홍빈은 2021년 7월, 브로드피크 완등 소식을 전하고 하산 중 추락하여 하늘의 별이 되었다. 2022년 10월 19일 그의 유품이 우리 박물관으로 기증되었고,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산악인 故 김홍빈은 1991년 북미 최고봉 데날리(6,190m) 단독 등반 중 동상으로 두 손(열 개의 손가락)을 잃었다. 그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등반을 계속 이어나갔다. 1997년 유럽 최고봉 엘브루스 등정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 등 2009년 7대륙 최고봉을 13년 만에 완등했고, 2021년 7월 18일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하

면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였다. 장애인으로 세계 최초의 기록이다.

또한 장애인 체육 진흥 운동, 장애인 인권운동, 후원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사후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체육 훈장 청룡장을 받았다.



우모복

2014년 마나슬루, 2017년 로체 등반 등 고산 등반시 착용했던 우모복이다.



방한덧신

故김홍빈이 사용한 물건, 장비에는 자신의 이름 마지막 글자 빈(빛날 彬)이 적혀있다.



빙벽화



아이스바일

두 손이 없는 김홍빈을 위해 특수제작된 아이스바일이다. 팔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제1화	두 주먹의 희망전도사 故김홍빈
제2화	산악문화 부흥의 선두주자 故홍석하
제3화	경남지역 산악활동의 선구자 故남행수
제4화	해외 고산 원정 등반의 큰 족적 故함탁영
제5화	부산의 독학파 산악인 故김옥배
제6화	산의 여로旅路 산악인 신유균
제7화	영원한 설악산 터줏대감 유창서
제8화	'71로체샤르, '77에베레스트 장문삼
제9화	한국 산악계의 대부 이인정
제10화	경남 산악활동의 명맥 최재일



온라인 전시 QR



국가숲길, 한라산둘레길

걷다보면 만나는 한라산의 동식물과 친구되기

한라산둘레길은 해발 600~800m의 국유림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일제강점기 병참로(일명:하치마키도로)와 임도, 표고버섯재배지 운송로 등을 활용하여 무오법정사, 시오름, 수악교, 이승악, 사려니오름, 물чат오름, 비자림로, 거린사슴, 돌오름, 천아수원지 등을 연결하는 80km의 한라산 환상숲길을 말하며,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된 9개 구간 65.8km(연계길 16.9km 포함) 숲길로 연간 84만여 명의 탐방객이 찾는 산림휴양 명소이다. 둘레길 주변에서는 국내 최대 삼나무림과 항일운동발생지, 4·3사건의 현장과 숯가마터, 화전터 등 제주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흔적도 만나볼 수 있다.

한라산둘레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산림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집중되는 탐방객 분산을 유도하고 역사·생태·지질·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서귀포시 무오법정사에서 시오름까지 9km 구간이 조성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 서귀포시 거린사슴에서 돌오름 구간 5km, 2012년 서귀포시 시오름에서 돈내코까지 5km, 2013년 돈내코에서 수악교를 거쳐 사려니숲까지 15km, 2014년 돌오름에서 천아수원지까지 10.9km가 조성됐다.

산림청은 한라산둘레길의 산림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가치, 숲길 규모, 운영관리 체계, 연결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여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

일, 대관령숲길, DMZ편치불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에 이어, 2022년 11월 8일 대전 둘레산길과 함께 국가숲길로 지정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방객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한라산둘레길 차마 진입 제한 지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160호)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 자전거 등의 차마는 2023년 8월 1일부터 진입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둘레길의 식생은 78과 254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졸참나무, 서어나무, 산딸나무, 때죽나무, 단풍나무, 참꽃나무, 말오줌때, 사람주나무, 윤노리나무, 쥐똥나무 등의 목본류와 천남성, 평의밥, 둥굴레, 박새, 새우난, 쯤비비추, 풀솜대, 으름난초, 개족도리 등의 초본류, 석송, 뱀뿔 고비, 가는홍지네고사리, 관중, 나도히초미 등의 양치류가 서식하고 있다.

육식성 포유류로는 오소리와 제주족제비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매, 팔색조, 참매가 서식하고 있다. 큰오색딱다구리, 박새, 곤줄박이, 삼광조 등 산림성 조류와 원앙, 땃기해오라기 등 산림습지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를 관찰할 수 있으며, 쇠살모의 밀도가 높고, 산림습지의 제주도롱뇽,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인 비바리뱀이 서식하고 있다.





한라산둘레길 구간 설명

걷기에 좋다, 그리고 쉬기에 좋다

천아숲길

천아수원지에서 보림농장 삼거리까지 8.7km의 구간으로 한대오름, 노로오름, 천아오름 등이 분포하고 있다. 노로오름 인근 한라산중턱 해발 1,000고지 일대에 검뱅디, 오작지왓이라고도 불리는 '숨은물뱅딴'이 있고, 무수천계곡으로 흘러가는 수자원의 보고인 광령천이 내려오는 곳에 천아수원지가 있으며 인근에 어승생수원지가 있다.

돌오름길

보림농장 삼거리에서 거린사슴오름(해발743m)까지 8km의 구간으로 색달천이 흐르고, 졸참나무와 삼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자란다. 거린사슴오름과 돌오름에 오르면 한라산과 법정오름, 볼레오름, 노로오름, 삼형제오름 등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등 제주 서남부 지역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동백길

동백길은 무오법정사에서 동쪽방향으로 돈내코 탐방로까지 이어지는 11.3km의 구간으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성지였던 무오법정사와 4·3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주돈소, 화전민 터 등과 동백나무 및 편백나무 군락지, 법정오름, 어점오름, 시오름, 미악산, 강정천, 약근천 등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한라산 난대림지역의 대표적인 수종인 동백나무는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5·16도로변까지 약 20km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최대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

수악길

수악길은 돈내코 탐방로에서 이승악 사이 11.5km의 구간으로 물오름(수악), 보리오름, 이승오름 등이 분포하고 있다. 수악길 중간에 있는 신례천은 한라산 사라오름 남동쪽에서 발원하여 보리오름 서쪽에서 합류하고 5·16도로의 수악교와 수악계곡을 거쳐 남원을 신례리로 흐른다. 수악계곡은 5·16도로 건너편 선돌계곡과 함께 팔색조의 도래지로 알려진다.

시험림길

시험림길 코스는 한라산의 남동사면 해발 300~750m에 있다. 서귀포시 남원을 이승악오름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시험림 구간을 통과해 사려니숲길과 이어지는 길이다. 시험림길 삼거리까지 9.4km로 조성됐다. 시험림은 멸종 위기 식물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식물 종자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곳. 극소수 개체만 남은 희귀식물 '성널수국'을 비롯해 이곳에 자생하는 식물만 337종에 이른다. 온대와 난대, 아열대 기후 특성을 함께 갖고 있어서 붉가시나무, 새덕이 등 상록활엽수와 서어나무, 졸참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함께 뿌리내리고 있다. 편백 채종원(採種園)도 만날 수 있다.





국립등산학교

숲길등산지도사 안전 산행을 위한 길라잡이

‘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조성한 숲길에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지도·교육하는 전문가다.

국립등산학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과 산림청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길등산지도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철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6년부터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을 운영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한 12기까지 총 320명을 배출했다. 전국에 있는 국립등산학교와 대한산악연맹, 산악구조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역량있는 강사진을 구성해 이론 및 실습 수업을 한다. 그 뒤, 지리산둘레길, 속리산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숲길등산지도사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진행한다.

교육 시간은 총 161시간으로 산림교육론, 산림생태계, 기본소양 등 공통과정 44시간, 등산·트레킹 일반, 구조·구급, 암벽기초, 산림환경, 교육실습 30시간을 포함한 11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강의실과 계곡산 및 대둔산 일원에서 주말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국립등산학교는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에 필요한 법정 교육과정 운영 및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산림교육전문가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산림교육전문가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확대되는 등산·트레킹 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올바른 산림 활용 방법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숲길등산지도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교육시간(145시간 이상 출석)을 이수하고 최종평가(이론 및 시연평가 각 70점 이상)에서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 취득 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및 지자체의 숲길등산지도사 채용을 통해 숲길등산지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국립등산학교

산림레포츠지도사

산과 하늘을 가로지르는 안전 모험의 멘토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등과 같은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인 체육지도사 안에서도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에 속하는 사람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식 지정된 산림레포츠 종목에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체험시설이 있다.

국립등산학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기관이다. 기존 산림레포츠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전문성 있는 교육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방법은 2주간 75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다. 각 과목 별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취득할 수 있다. 해당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55시간, 실습 20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편성된 공통과정을 살펴보면, 산림 분야와 산림레포츠에 대한 이해, 교육지도, 안전 관리까지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 해당 양성과정은 최대한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알차게 편성했다. 또한 종목별 실습과정도 전문성에 따라 1과목 선택으로 진행하여 수업 자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과정 수료 후 2년까지 산림레포츠지도사 과정에서 ‘산림분야에 대한 이해’ 공통교육과정 과목 8시간이 인정된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취득 후, 산림레포츠 종목 별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이면 타 종목을 추가 응시할 경우 ‘산림분야에 대한 이해’(8시간)와 ‘산림레포츠에 대한 이해’(12시간) 공통과목에서 총 2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산림레포츠 운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현장 안전을 관리할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

국립등산학교는 국민들의 산림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올바른 등산 문화 형성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림레포츠지도사 과정을 거쳐 갈 많은 인재들과 국립등산학교는 여정을 함께할 것이다.



신입직원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행사 뒷이야기

산이 좋다, 사람은 더 좋다

우리의 행사는 산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다양한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신입직원의 마음으로 따라가 본다.
처음이라 설레고, 가을 산이라 더 설레고... 이 설렘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더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설렘을 만들고 싶다.

EVENT 1 _ 숲길 공감 4C 행사

교육운영1실 _ 강주연 주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 공감 4C¹⁾ 행사에 참여했다. 대관령 국민의 숲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ESG²⁾ 경영 실천을 위한 플로킹을 했다. 단풍으로 물든 숲길을 걸으며 동기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가장 뿌듯했던 점은 다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호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간 숲길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며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ESG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

교육운영2실 _ 박종혁 주임

센터 4C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대관령 국민의 숲에 갔다. 입사 후 처음으로 센터 직원들과 함께하는 산행이고, 대전에 혼자 있는 동기를 만날 생각에

더 설렘다. 국민의 숲은 산림청에서 수십 년간 조립한 다양한 수종이 조성되어 있고, 누구나 부담 없이 트레킹을 즐길 수 있으며, 입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곳이었다. 앞으로도 플로킹을 즐겨하며 올바른 등산·트레킹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



- 1) 4C :깨끗한 숲길(Clean), 배려·보살핌(Care), 소통(Communication), 협력(Cooperation)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숲길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구성원 간의 소통·협력하는 조직문화 향성을 위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캠페인을 말함
- 2) 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말함

교육운영2실 _ 유은설 주임

10월의 대관령 숲길은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가득했다. 행사 장소로 지정된 국민의 숲길은 수목들이 맑은 풍경을 선사했다. 4C 행사의 의의 또한 이 풍경과 결을 같이 했다. 직원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사랑들이 오간 흔적을 치우며 보람을 느꼈다. 동시에 숲길관리실 분들이 수목 해설을 진행해 주셔서 고마운 수목들에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다. 낙엽송, 전나무, 구상나무 등, 다양한 수목들과 소통하고, 숲길과 만나며,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하루였다.

EVENT 2 _ 기부 걷기 행사

운영지원실 _ 서소람 주임

지난 10월 21일, 23년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부걷기 행사에 참여했다. 대관령 숲길 안내센터 책임관리원 차미숙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산을 오르다 보니, 등산·트레킹 문화의 확산과 활동 지원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입사 이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신규직원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1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정상에 밟았다는 점도 뜻깊었다. 짐을 들어주고 낙엽을 치워주는 등, 서로를 도우며 격려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성과였다. 하산한 이후에는 소년소녀가장 집수리를 위한 기부금을 다솜동지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러한 따뜻한 행사에 직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다음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숲길관리실 _ 김민희 주임

대관령 기부 걷기 행사가 열리던 10월 21일에는 우리를 반겨주듯 강원도에 첫눈이 내렸다. 기부 걷기 행사를 하기 위해 모인 대관령 안내센터에 내린

눈은 녹아 없어져서 아쉬웠지만, 센터 직원들의 열정이 대신 자리했다. 모자, 핫팩, 두툼한 외투까지 챙겨입고 산을 올라가며 숲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입사 이후 처음으로 동기들과 만나는 행사라 그동안 못한 이야기도 나누며 함께 능경봉에서 사진도 찍었다. 걷기 행사의 선두에 서신 차미숙 선생님께서 땀이 날랑말랑 걷는 게 가장 좋다고 좋은 산행 방법도 알려주셨다. 내려오는 길은 낙엽이 많아 제법 미끄러웠지만, 앞장서서 치워주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주기도 하며 서로를 신경쓰는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의 팀이라는 것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립산악박물관, 국립등산학교에 계신 직원분들과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건강을 지키며 취약계층인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박물관 소식

설악산 산악구조대 유물 기증식 진행

-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 설악산 기획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

지난 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대한산악연맹 설악산 산악구조대로부터 가치 높은 자료 100여 점을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유물에는 구조 현황 일지, 현판, 인증서, 구조 장비 등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시 <설악산, 그때 그 시절>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다.



유물 기증

임시 휴관 마치고 재개관

- 휴관 기간 동안 내부마감재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 및 개관 행사 진행

국립산악박물관은 4월부터 약 3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7월 1일 재개관하였다.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80인치 대형 LED 웰컴존을 설치하고, 피켈과 스토브 컬렉션 전시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재개관을 기념하여 진행한 SNS 인증 이벤트가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개관 행사

여름을 부탁해, 설악산클래스 등 프로그램 진행

-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산악문화 체험키트존 운영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국립산악박물관, 여름을 부탁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산악텐트 무드등 만들기, 팝업카드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린이들이 산악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여름을 부탁해

온라인기자단 운영

- 국립산악박물관의 다양한 활동과 산악문화 홍보

온라인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는 요즘, 국립산악박물관은 9월부터 온라인기자단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기자단은 국립산악박물관의 다양한 활동과 산악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악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전시관 개최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서울로7017등 전국 다양한 곳에서 산림 문화 알려

국립산악박물관은 9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박물관과 찾아가는 전시관을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박물관의 경우 1부에서는 백두대간과 산경표, 2부에서는 글과 그림으로 보는 우리 산 전시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전시관에서는 '국가숲길'을 주제로 부루마블 체험과 국립산악박물관의 소장품 '환경척방도'를 소개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찾아가는 전시관

국립산악박물관, 설악문화제 <아이거북벽 VR체험> 부스 운영

- 제58회 설악문화제에서 국립산악박물관 VR체험 큰 인기

국립산악박물관은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진행된 제58회 설악문화제에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체험거리는 아이거 북벽 VR체험으로, 인기리에 진행되었다.



아이거북벽 VR

구술조사보고서 발간

- '한국 산악 외교가' 원로 산악인 이인정의 진솔한 이야기 담겨

지난 9월 27일, 구술조사보고서 9호를 발간했다. 구술조사보고서는 사라져가는 산악 역사를 기록하고자 2016년 시작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1969년 설악산 10동지 조난사고', '1980년 마나슬루 초등', '국내·외 산악계와의 인연' 등, 산악인 이인정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구술조사보고서

「산악연구」 4호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 소장품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는 기회 마련

11월 7일, 「산악연구」 4호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악연구」는 한국 산악 역사·문화의 학술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고자 발행한 연구보고서이다. 이번 세미나는 양보경 성신여대 전 총장을 좌장으로 이상태(한국영토학회), 윤재환(단국대), 이기봉(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소장품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는 기회가 되었고, 연속해서 연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했다.



「산악연구」 세미나

속초해변

누구나 바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해오름로 190. 속초해변이다.

속초해변은 1976년 7월 1일 개장한 이후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다.

겨울에 바다에 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속초해변은 수심이 얇고 경사가 완만해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다. 백사장에는 목책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뒤편에는 잘 가꿔진 소나무 숲이 있어 해수욕을 즐기지 않더라도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화장실과 샤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빼놓아진 사각 프레임에서는 속초해변의 청량함이 한껏 느껴지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파란 바다와 대비되는 강렬한 핑크색의 테트라포드와 보기만 해도 사랑이 넘치는 산호사랑나무와 함께라면 속초의 감성이 듬뿍 담긴 사진을 남길 수 있다.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볼거리가 가득하다. 여름 해변 축제, 수제 맥주 축제 등 해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행사 시기에 맞춰 일정을 잡는다면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속초시의 주요 관광지인 설악산, 척산온천, 청초호, 영랑호, 대포항 등을 함께 들린다면 속초를 더욱 깊이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속초 여행의 모미는 뭐니 뭐니 해도 먹거리다. 특히 '닭강정'은 우리나라의 대표격이며, 바다를 앞에 둔 도시인 만큼 활어회, 물회, 홍게찜, 곰치탕 등 해산물 요리도 일품이다. 고소한 육즙이 중독성 있는 오징어순대도 식사나 안주로 안성맞춤이다.

이번 주말, 속초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속초에서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보자.

